『다이헤이키(太平記)』의 세계와 전쟁의 대의명분*

김정희**
rusia73@hanmail.net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칠생설'과 『다이헤이키』의 세계
Ⅲ. 무사도의 유행과 『다이헤이키』의 세계
Ⅳ. 군신(軍神)과 『다이헤이키』의 세계
4.1. '칠생보국(七生報國)'의 정신과 군신
4.2. 다치바나 슈타의 구스노키 마사시게 자손설
Ⅴ. 마치며

Abstract

本稿は、近代の戦争において『太平記』の世界が武士道や軍神と結び付けられ、戦争に臨む人々の大義名分として認識されてゆく過程について論じたものである。

一つ目は、幕末の思想家である吉田松陰が楠兄弟の「七誠滅賊」という最後の言葉に注目し、その精神から永久不変の忠の精神を見い出したことについて論じた。

二つ目は、日露戦争が勃発した後、武士道が流行したことに焦点を当て、その武士道が国民道徳であると主張されていることについて考察を行った。'武士道＝国民道徳'という論理は、天皇に対する忠孝精神によって成り立ったもので、その精神を代表する人物として楠正成が取り上げられている。そして、このような言説は国民に武士道をもとにして行った戦争が正当なものであるという認識を植え付けていることを述べた。

三つ目は、日露戦争で部下のために戦死し、軍神に祭られるようになった広瀬武夫と橘周太を中心に、彼らが 『太平記』の世界と密接に関わってゆくことについて検討した。まず、広瀬武夫の場合、彼は様々な書物において吉田松陰の主張した 「七誠滅賊」を受け継いでいることが語られている。また、橘周太に関しては楠正成の子孫であることが言われている。これらは軍神が己れを 『太平記』の世界に投影し、戦場で戦っていたことを示すためのものであったと判断される。そして、このような言説は国民をして軍神に、ひいては 『太平記』の世界に自らを投影させるための政治的な手法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Key Words : 太平記, 大義名分, 戦争, 七生説, 武士道, 軍神

* 이 논문은 2011년도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교책중점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단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일본문화・문학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Taiheiki, Just cause, War, Theory of the seven lives, Bushido, War hero

Ⅰ. 들어가며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의 멸망, 고다이고 천황(後醍醐天皇)에 의한 겐무의 신정(建武の新政, 1333년), 그리고 남북조(南北朝)의 동란을 그린 중세 군기모노가타리(軍記物語)의 대표작인 『다이헤이키(太平記)』는 구전인 강석(講釈)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것에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을 '다이헤이키요미(太平記読み)' 라고 하는데, 이 강석은 근세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져 그 영향은 지도층에서 서민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1]. 이 '다이헤이키요미' 를 통해 가장 강렬한 인상을 안겨 준 인물은 고다이고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正成)이다. 근세시대에 편찬된 『대일본사(大日本史)』는 『다이헤이키』의 묘사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면서 남조(南朝)가 정통임을 주장하였는데, 이후 근왕가(勤皇家)들은 이를 계승하여 고다이고 천황이 세운 남조의 정통성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고다이고 천황을 위해 끝까지 싸운 충신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구스노키 마사시게를 신봉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2]. 그 중에서도 막말(幕末) 대표적인 존왕론가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은 구스노키 마사시게에게 깊이 경도되어 그의 묘를 참배하였고, 이 에피소드는 근대의 각종 서적에 소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다이헤이키』 수용의 역사를 바탕으로, 요시다 쇼인의 '칠

1) 대표적인 논고로는 若尾政希(1994) 「「太平記読み」の歴史的位置」 『日本史研究』380, 兵藤裕己(2005) 『太平記<よみ>の可能性』講談社学術文 등을 들 수 있다. '다이헤이키요미'가 근세시대 서민들에게 수용되어 가는 양상은 위의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단계이고, 또한 메이지 유신 이후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국민통합의 원리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최근의 보고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다이헤이키요미'를 바탕으로 한 『다이헤이키』의 세계가 근대 전쟁의 대의명분의 논리로 이용되어 가는 점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 존왕가들이 남조의 천황을 정통으로 여겼고, 그 남조의 천황을 위해 싸운 구스노키 마사시게를 충신으로 신봉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메이지 천황은 북조의 자손으로, 따라서 남조를 정통으로 하면서도 북조의 자손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에는 항상 모순이 존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남북조정윤문제(南北朝正閏論争)가 붉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생설(七生說)' 을 비롯하여 근대이후 전쟁기에 『다이헤이키』의 세계가 국민들에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대의명분의 논리로 어떻게 흡수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요시다 쇼인의 '칠생설'과 『다이헤이키』의 세계

『다이헤이키』에서는 구스노키 마사시게, 마사스에(正季) 형제가 미나토가와(湊川) 전투에서 궁지에 몰려 마지막 각오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이미 기력이 완전히 쇠해 버렸기 때문에 미나토가와 북쪽에 있는 한 군락의 민가로 뛰어 들어가 마사시게는 동생인 마사스에에게 "원래 인간은 죽기 전 마지막 생각에 따라서 내세의 극락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결정된다고 한다. 아홉 개의 세계 중에서 네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냐. 바로 그곳으로 가자"라고 물었다. 그러자 마사스에는 호탕하게 웃으며 "단지 일곱 번(七生) 다시 태어나더라도 역시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조정의 적을 멸망시키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마사시게는 마음으로부터 기쁜 듯이 "죄업이 많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생각이기는 하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나서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소원을 이루어야겠구나."라고 약속하고 구스노키 형제는 서로를 찌르고 같은 곳에서 쓰러졌으니……
>
> 機すでに疲れければ、湊川の北に当る在家の一村ありける中へ走り入り、腹を切らんとて舎弟正季に申しけるは、「そもそも最後の一念によって、善悪生をひくといへり。九界の中には、何れのところか、御辺の願ひなる。直にその所に到るべし」と問へば、正季からからと打ち笑ひて、「ただ七生までも同じ人間に生れて、朝敵を亡ぼさばやとこそ存じ候へ」と申しければ、正成よにも心よげなる気色にて、
>
> 「罪業深き悪念なれども、我も左様に思ふなり。いざさらば、同じく生を替へて、この本懐を遂げん」と契つて、兄弟ともに指し違へて、同じ枕に伏しければ…… (pp.316~317)[3]

3) 長谷川端 校注・訳(1996)『太平記』2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55 小学館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밑줄부분의 “단지 일곱 번(七生) 다시 태어나더라도 역시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조정의 적을 멸망시키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은 근세의 『일본외사(日本外史)』등, 구스노키 마사시게를 묘사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표현에 특별한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다름 아닌 요시다 쇼인이라는 것이 메이지 이후의 인식이었다. 예를 들어 후지타 세이이치(藤田精一) 씨는 ‘쇼인은 대(大) 구스노키 씨를 신으로 추거하여 그 칠생멸적의 불사를 믿고 따라서, 몇 번이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정신을 자신의 규범으로 삼았다. 이에 의해서 쇼인이 이후 창도한 ‘칠생멸적(七生滅賊)’ 이라는 말에 생기가 생겼다(「松陰は大楠氏に神明の誠を推し、其の七生滅賊の不死を信じ、依つて以て百折不撓の精神を私淑せしなり、是に於てか松陰が爾來唱道せし「七生滅賊」の語に生気あり」)’(p.599) [4]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칠생멸적’ 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그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 다름 아닌 요시다 쇼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시다 쇼인이 이 구스노키 형제의 ‘칠생멸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칠생설[5]’ 은 요시다 쇼인이 시모다 사건(下田事件, 1854년 페리가 미일화친조약을 위해 내항했을 때, 이즈 시모다항(伊豆下田港)에 정박하고 있었던 배에 올라타려다가 거부당한 후 막부에 자수하여 투옥된 사건)으로 옥중에 수감되어 쓴 『병진유실문고(丙辰幽室文稿)』에 수록되어 있다. 1857년 4월 15일에 작성된 이 ‘칠생설’ 에는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칠생멸적’의 정신이 유교의 이기론(理気論)을 바탕으로 서술되고 있다[6].

> 하늘은 헤아릴 수 없이 넓어 하나의 理에 존재하고, 父子祖孫은 면면이 이어져 하나의 気로 계승되어 간다. 사람이 살아갈 때, 이 理를 취하여 마음으로 삼고, 이 気를 받아서 몸으로 삼는다. 몸은 私이고 마음은 公이다. 私를 사용하여 公을 따르는 자를 대인이라고 하고, 公을 사용하여 私를 따르는 자를 소인이라고 한다. 따

4) 이하 藤田精一(1915)『楠氏研究』藤田精一에서 인용한 본문은 페이지 수를 표시하였다.
5) 원래 ‘칠생’이라는 용어는 불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세계 및 천계(天界)에 일곱 번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요시다 쇼인의 경우 이것을 유교적으로 해석하여 개인의 윤회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과 세대로 이어지는 정신적 문제로 풀이하였다.
6) 쇼인의 칠생설과 이기론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山崎道夫(1972)「吉田松陰の七生説と宋学の理気論」『大東文化大学東洋研究所』第26巻, pp.9~14.에 자세한 분석이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라서 소인은 몸이 없어지고 気가 다할 때, 즉 썩어서 없어져도 또한 수습할 도리가 없다. 군자는 마음이 理와 통하여 몸이 사라지고 気가 다하더라도 이는 홀로 고금에 걸쳐 천지무궁하여 결코 한시도 없어지는 일이 없다. 내가 듣기를 정삼위 구스노키 공이 죽을 때 그 동생인 마사스에를 보고 말하길 "죽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말하길 "원컨대 일곱 번 사람으로 태어나도 국적을 멸망시키겠습니다." 공은 기뻐하며 말하길 "우선 나의 마음과 같구나"라고 하며 서로를 칼로 찔러 죽었다고 한다. 아아, 이것이야말로 깊이 理気를 보는 것이리라. 이 때부터 마사츠라・마사토모의 모든 자손은 즉 理気와 함께 이어지는 것이다. 닛타・기쿠치씨 일족은 氣를 떠나 理가 통하는 자이다. 이에 근거하여 말하자면 구스노키 공 형제는 단지 七生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도 역시 결코 죽은 것이 아니다. 그 후에 忠孝節義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구스노키 공을 보고 일어나지 않은 자가 없으니 즉 구스노키 공 이후에 또한 구스노키 공을 낳은 자, 옛부터 헤아릴 수 없다. 어찌 홀로 七生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7].

「天の茫々たる、一理ありて存し、父子祖孫の綿々たる、一気ありて属く。人の生るるや、斯の理を資りて以て心と為し、斯の気を禀けて以て體と為す。體は私なり、心は公なり。私を役して公に殉ふ者を大人と為し、公を役して私に殉ふ者を小人と為す。故に小人は體滅し気竭くるときは、即ち腐爛潰敗して復た収むべからず。君子は心、理と通ず、體滅し気竭くるとも、而も理は独り古今に亙り天壌を窮め、未だ嘗て暫くも歇まざるなり。余聞く、贈正三位楠公の死するや、其の弟正季を顧みて曰く、「死して何をか為す」。曰く、「願はくは七たび人間に生れて、以て国賊を滅さん」。公欣然として曰く、「先づ吾が心を獲たり」とて耦刺して死せりと。噫、是れ深く理気の際に見ることあるか。是の時に当り、正行・正朝の諸子は則ち理気並び属く者なり。新田・菊地の諸族は気離れて理通ずる者なり。是れに由りて之れを言はば、楠公兄弟は徒に七生のみならず、初めより未だ嘗て死せざるなり。是れより其の後、忠孝節義の人、楠公を観て興起せざる者なければ、則ち楠公の後、復た楠公を生ずる者、固より計り数ふべからざるなり。何ぞ独り七たびのみならんや」(pp.127~128)

마음을 理로, 실체인 몸을 気로 정의하고 気가 사라지더라도 마음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이기론의 설명부터 시작하여 군자는 마음이 理와 통하기 때문에 그

7) 이하 칠생설의 인용은 吉田松陰著・山口県教育会編(1935)『丙辰幽室文稿』吉田松陰全集第7巻 岩波書店에 의하고, 페이지 수를 표시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죽더라도 그 정신(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것을 구스노키와 연관지어 구스노키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구스노키 형제의 충(忠)의 정신(理)도 영원히 이어진다고 해석하고 있다(밑줄부분). 따라서 구스노키와 같이 활약한 남조의 충신인 닛타와 기쿠치 씨는 구스노키와 気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혈연관계는 아니지만), 理는 구스노키와 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스노키 형제가 칠생(七生)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 자신이 일곱 번 태어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에 의해서 영원히 계승되고 있다는 것이다. 요시다 쇼인이 구스노키 형제의 '칠생멸적' 에 주목하여 그로부터 읽어 낸 것은 단지 불교의 윤회설을 바탕으로 그들의 충절의 각오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개인을 뛰어넘어 세대로 이어진다는 영원성과, 때문에 그것이 당시의 시대상황 속에서도 계승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요시다 쇼인은 '칠생설'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맺고 있다.

> 이 불초소생은 성현의 마음을 보존하고 충효의 뜻을 세워 국위를 선양하고 해적을 물리치는 것을 무턱대고 나의 임무로 삼아 실패를 거듭하여 불충불효인 사람이 되어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면목이 없다. 그러나 이 마음은 이미 구스노키 공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그 理를 함께하고 있다. 어찌 気體를 따라서 썩고 질 수가 있겠는가. 반드시 후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일어나도록 칠생에 이르러, 그 후에도 가능하게 할 뿐이다. 아아, 이것은 나에게 달렸다. 칠생설을 만든다.
>
> 余不肖、聖賢の心を存し忠孝の志を立て、国威を張り海賊を滅ぼすを以て、妄りに己が任を為し、一跌再跌、不忠不孝の人となる、復た面目の世人に見ゆるなし。然れども斯の心已に楠公諸人と、斯の理を同じうす。安んぞ気体に随つて腐爛潰敗するを得んや。必ずや後の人をして亦余を観て興起せしめ、七生に至りて、而る後可と為さんのみ。噫、是れ我れに在り。七生説を作る。(p.129)

위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요시다 쇼인 자신이 '이 마음은 이미 구스노키 공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그 理를 함께하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구스노키 마사시게와 같이 충절의 뜻을 품은 사람들과 그 정신이 통하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것이다. 이 문장은 바로 앞에 서술한 쇼인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위('성현의 마음을 보존하고 충효의 뜻을 세워 국위를 선양하고 해적을 물리치는 것을 무턱대고 나의 임무로 삼아 실패를 거듭하여')를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한 것이라는 정당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밀항을 하려고 한 자신의 시모다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의 대의명분을 바로 불변의 구스노키 형제의 정신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대의명분이란 나라를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쇼인이 '칠생설' 을 만든 것은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읽어 보고 본보기로 삼아 일곱 번을 다시 태어나더라도 대의명분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역설하고 있다.

요시다 쇼인의 사상은 막말 지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찾고자 할 때 구스노키 형제를 비롯한 남조 정통론과 관련된 『다이헤이키』의 세계의 언설을 자신들의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 (1) 우리 동지들이 존왕토막의 대의를 주창하여 몸을 버리고 집을 잊고 동분서주하여 천하를 움직여서 결국 메이지유신 왕정복고의 시대를 연 것은 모두 이 대(大) 구스노키 공의 유지를 계승하여 군주와 국가를 위해 신하로서 지켜야 할 절의에 힘썼기 때문이다.
>
> 吾等同志の者が、尊皇討幕の大義を唱へ、身を捨て家を忘れ、東奔西走して天下を動かし、遂に明治維新王政復古の御代を開きしは、皆是れ大楠公の遺志を継承して君国の為に臣節を竦勵したからである、[8] (p.617)

조슈번(長州藩)의 지사로서 메이지 유신에 현격한 공을 세운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는 1875년 2월에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가마쿠라 막부군과 100일 동안 대치한 성지가 있는 치하야아카사카촌(千早赤阪村)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뜻을 밝혔다. 『다이헤이키』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남조정통론을 인식하여 자신들이 행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동의 대의명분을 밝힘으로서 정의로운 것, 옳

8) 藤田精一, 前掲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은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서민들 사이에 침투할 수 있었던 것은, 예를 들어 막말 교토(京都)의 기온(祇園)에서 ‘ “조슈인들은 마사시게를 하신다고 한다.”라고 이야기되었다고 한다. 마사시게에 대한 일정한 통념이 교토의 서민들 사이에까지 공유되어 있었던 것으로, 선전을 잘하는 막말 조슈인들은 그러한 서민 감정을 잘 포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 얼마가 정의로운지를 그와 같이 간결한, 즉 캐치 플레이즈를 가지고 단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長州様は、正成をなさるそうな」と、いわれていたという。正成についての一個の通念が京の庶民のあいだにまで共有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であり、宣伝上手の幕末長州人はそういう庶民感情をうまくとらえて、自分たちの政治的立場がいかに正義であるかを、そのように簡潔な、つまりキャッチ・フレーズをもって端的に訴えていたともいえるかもしれない」)’(p.8)[9]라고 하는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씨의 지적대로 ‘다이헤이키요미’를 통하여 구스노키 마사시게는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이미지가 보급되어 있었다. 죠슈인이 마사시게를 한다는 것은 바로 구스노키 마사시게와 같이 옳은 일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시다 쇼인과 오쿠보 도시미치도 자신의 정신과 행동을 구스노키에게 투영시킴으로서 그 충성의 정신의 영원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구스노키 마사시게는 신으로 모셔진다. 남조의 충신 중 가장 먼저 신격화되어 신사가 건립된 것도 구스노키 마사시게였으며, 1880년에는 천황이 이 미나토가와신사(湊川神社)를 직접 방문했고, 1903년에는 황궁 앞에 그의 동상이 세워진다. 그리고『다이헤이키』의 세계를 중심으로 한 충절의 정신과 행동하는 자들의 자기 정당성의 논리는 근대 이후 전쟁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근대 이후 일어난 전쟁과 관련하여『다이헤이키』의 세계의 담론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침투해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9) 司馬遼太郎(1971)「太平記とその影響」『太平記』日本の古典15 河出書房新社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Ⅲ. 무사도의 유행과 『다이헤이키』의 세계

오늘날 무사도(武士道)라는 용어는 일본 무사의 정신을 일컫는 말로 매우 친숙하지만, 실제로 이 단어는 근세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자 무사도라고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유물에 지나지 않다고 인식되어졌는데, 그러나 이 용어는 근대 이후에 다시 부활하여 인기를 끌게 된다. 때는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을 거친 시기, 특히 러일전쟁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씨에 의하면,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의 『무사도(武士道)』가 영문으로 간행된 것은 1899년이고, 이것이 일본어로 번역된 것은 러일전쟁 후인 1908년으로, 그러나 이 번역서의 간행이 무사도 유행의 직접적인 계가가 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신문 『일본(日本)』에 따르면 거의 사어(死語)가 되었던 무사도가 러일전쟁을 기회로 갑작스레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실정[10]이라는 것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자긍심을 가지게 된 일본인들이 이 전쟁의 승리를 일본고유의 정신에서 찾고자 했다는 점이 무사도의 직접적인 유행의 계기였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당시 무사도에 대해서 집필한 인물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명확히 드러난다. 러일전쟁 이후 무사도를 집필한 대표적인 인물은 당시 철학계의 일인자로 손꼽혔던 이노우에 데츠지로(井上哲次郎)였다. 물론 이에 앞서 『무사도』가 유행할 기반은 서서히 마련되고 있었다. 무사도에 대한 가장 빠른 시기의 연구로는 1892년에 시게노 야스츠구(重野安繹)가 「무사도는 모노노베, 오오토모 두 씨에 의해, 법률 정치는 후지와라씨에 의한다(「武士道は物部大伴二氏に興り法律政治は藤原氏に成る」)」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것인데, 그 내용은 후에 1909년에 간행된 『일본무사도(日本武士道)』에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무사도는 멀리 그 심원을 찾아보니 이미 그 발단은 신대(神代)에서 시작되어 건국과 함께 일어난 것이다. 이자나기 이자나미 두 신이 옥으로 만든 창을 가지고 오야시마구니를 여신 것을 시작으로 하여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검을

10) 야마무로 신이치 지음・정재정 옮김(2010) 『러일전쟁의 세기』 소화, p.23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가지고 나라의 근원으로 삼고 삼종의 신기 중 하나에 넣은 것은 …… 국민이 상무의 기상을 양성하는 것에 틀림이 없고, 그렇다면 국민의 기상 자체가 武를 좋아하는 것은 원래 천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양하고 선도한 공적은 조종의 은덕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我国の武士道は、遠く其淵源を尋ぬるに、既に端を神代に発し、建国と倶に起りしものなり、伊弉諾伊弉册二尊の瓊矛を以て大八洲を開き給へるを始とし、天照大神の実劔を以て、国の本と為して、三神器の一に加へ給ひしが、……国民尚武の気象を養成せるものに非るはなし、されば国民の気象自ら武を好むは、もと天性に出ると雖、その培養薫化の功は、全く祖宗余沢の致す所なりといはざるべからず。……[11]

무사도는 신대(神代)에 발생한 것으로 武를 좋아하는 것은 일본인의 천성이지만 상무정신(尚武精神)의 배양은 군주의 시조(조종), 즉 천황의 시조의 공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게노는 무사도를 일본인의 상무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는 아다치 리츠엔(足立栗園)과 이노우에 데츠지로의 무사도론 안에서도 확인된다.

(2) 무사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 한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우리 일본이 예로부터 무용의 나라였던 것을 먼저 알아두어야 한다.

武士道の本質如何を知らうと思へば何は扨置き、我が日本国が古来武勇の国であったことを先づ承知して置かねばならぬ。[12]

(3) 무사도는 일본민족의 상무의 기상과 함께 발달해 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일찍이 신화의 세계 속에서도 무사도의 심원이라고 보아야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부터 이후에는 무사도의 시작이라고도 이야기할 흔적은 얼마든지 있다.

武士道は日本民族の尚武の気象と共に発達して来て居ります、遡って考えまするに最早や日本の神話の中に於ても武士道の淵源と見做すべき者がないでもない、夫から以後に至りましては武士道の初めとも謂ふ可き痕跡は幾らもある。[13]

11) 重野安繹・日下寛共著(1909)『日本武士道』大修堂, pp.1~2.
12) 足立栗園(1901)『武士道発達史』積善館, pp.7~8.
13) 井上哲次郎(1902)『巽軒講話集 初編』博文館, p.9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전자의 인용문(2)는 1901년에 아다치가 무사도의 발달사에 대해서 서술한 것으로, 이노우에 데츠지로의 무사도론보다 빠른 시기에 간행된 것이다. 이 서적의 서문은 이노우에 데츠지로가 서술하고 있는데, 인용문(3)의 그의 무사도론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노우에가 아다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인용문(2)와 (3) 모두 전게한 시게노 야스츠구의 주장대로 일본의 무사도를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신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무사도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를 고찰하는 이상의 저서들에는 무사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충(忠)의 정신이며, 무사도를 집결해 놓은 것이 다름 아닌 군인칙유(軍人勅諭)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 모든 덕이란 첫 번째로 충효, 두 번째로 굳셈과 용감함, 세 번째로 청렴과 결백, 네 번째로 자비, 다섯 번째로 절도, 여섯 번째로 예의, 우선 이러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諸徳とは一に忠孝、二に剛勇、三に廉潔、四に慈悲、五に節操、六に礼儀、先づ是等要素であると思ふのである。(p.1)[14]

(5) 종래의 무사제도를 개선하여 전국 개병주의를 취하여 메이지 5년(1872년)에는 징병령을 발포하여 군제를 정비하고 그리고 칙유를 군인에게 내리시어 이것이야 말로 무사도의 진수로서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이 길이 받들어야 할 실제의 원칙이기 때문에 삼가 기록하여 무사도 편을 엮는다.

従来の武士制度を改め、全国皆兵の主義を執り、明治五年には徴兵令を発して軍制を定め、尋て勅諭を軍人に下し給へり、是実に武士道の神髄にして、独軍人のみならず、国民の永く遵奉すべき実典なれば、謹み録して武士道の編を結ぶ。

(p.411)[15]

(6) 일본의 군대가 뛰어난 성적을 청일전쟁 및 후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나타낸 것이라는 것도 주로 무사도 정신이 계속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계만으로 일본의 군대가 그와 같이 엄청난 공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기계를 운용하는 곳의 정신이 첫 번째입니다. 기계는 그 다음입니다. ……단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정교한 기계를 운용하기 위한

14) 足立栗園, 前掲書
15) 重野安繹, 前掲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일종의 장렬한 정신이 있다, 즉 무사도의 정신이 있다, 그리하여 메이지 15년(1882년) 1월 15일의 군인에게 내린 칙유를 보니 그 대체적인 취지라는 것은 역시 무사도의 정신입니다.

日本の軍隊が非常な成績を日清戦争及び後ちの聯合軍に於て現はしましたと云うやうなことも重もに武士道の精神を存続して居るが為と云事は疑ひありませぬ、……器械だけで日本の軍隊が左様に著しき功を奏したと云ふ事は信ぜられませぬ、器械を運用する処の精神が第一であります、器械は其次であります、……只我等には左様な精巧な器械を運用する処の一種の壮烈なる精神がある、即ち武士道の精神がある、さうして明治十五年一月十五日の軍人に賜った処の勅諭を拝見しまするに其だいたいの趣意と云ふ者は矢張武士道の精神であります。(p.100)[16]

(5), (6)의 인용문에서 공통적인 것은 점선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군인칙유가 무사도의 진수라고 지적하는 점이다. 그리고 그 무사도의 정신으로서 본문(4)에서는 첫 번째로 충효의 정신을 꼽고 있는데, 이것은 군인칙유의 첫 번째 덕목이 충절이라는 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또한 인용본문(6)에서 흥미로운 것은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가 무사도 정신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즉 일본군의 무사도 정신이 같은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서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논리이다. 러일전쟁 이후 무사도의 갑작스러운 유행은 서양의 무기를 가지고 막대한 희생을 치러서 이긴 서양과의 싸움인 만큼 일본의 우수성을 민족정신에서 구하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사도 정신은 인용문(5)의 밑줄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이 가져야 하는 민족정신으로, 이를 국민교육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 이노우에 데츠지로는 '무사도는 어디까지나 도덕이다, 무사도라고 해서 道라는 글자를 붙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틀려서는 안 된다. 무사도가 도덕을 떠나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전적으로 일본의 도덕주의다(「武士道は何処迄も道徳である、武士道と言って道の字を附けてはありませぬが、夫を間違へては行かぬ、武士道が道徳を離れて別にあるやうに考へたならば大変な間違ひである、全く日本の道徳主義である」)'(p.120)라고 하여 무사도를 일본의 도덕주의라고 주장하며 '군인에게 내린 칙

16) 井上哲次郎, 前掲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어와 교육계에 내린 칙어와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나는 국민도덕을 나타낸 것으로, 양자는 새의 양 날개, 차의 양 바퀴처럼 더불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軍人に賜はった、勅語と、教育界に賜はった勅語と、寸毫の違はない、一は武士道を示され、一は国民道徳を示されたもので、この両者は、烏の双翼、車の両輪のやうに相待って効を奏すべきものであると思ふ」)'(p.375)라고 하는 것과 같이 교육칙어(教育勅語)와 군인칙유는 동일한 것으로, 무사도와 국민도덕 역시 동일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1912년에 발표된 그의 저서 『국민도덕개론(国民道徳概論)』에서 충효일치(忠孝一致)야 말로 일본 국민도덕의 정수라고 하는 사상으로 구체화되어 간다. 이와 같은 '무사도 = 국민교육'의 필요성은 바꿔 말하면 국민의 정신적 군인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한 충효일치는 일본의 국민도덕의 훌륭한 점이다. 진보 발전은 영구히 기약할 것이지만, 그와 함께 역시 충효일치를 완전히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로 대의명분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의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조문제에 관해서도 누누이 이야기되어 왔습니다만, 남북조에 관해서도 동일하다. …… 더욱 큰 국가성립의 근본주의로 되돌아가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안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일본에게는 국민도덕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국가성립의 근본주의는 만세일손의 황통 – 이것이 국체의 기초이다. 이것이 만사의 기저에 있다. 일본 국가의 성립이유는 그것에 있는 것이다.
>
> さう云ふ忠孝一致は日本の国民道徳の粋である。進歩発展は永久に期すべき事であるが、それと共に矢張り忠孝一致を全うすべきである。なぜならば、これは実に大義名分の係る所であるからである。大義名分と云ふ事は南北朝問題に関しても屢々言はれましたが、南北朝のことも同じわけである。……一層大なる国家成立の根本主義に立返って、斯る問題に対しては断案を下さんければならぬ。それが日本にとっては国民道徳の一番重要な点であります。国家成立の根本主義は万世一孫の皇統 — これが国体の基礎である。これが万事の根底である。日本国家の成立つ所以は其処にあるのであります。(p.273)[17]

17) 井上哲次郎(1912)『国民道徳概論』三省堂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국민도덕개론』이 발표된 1912년은 남북조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이른바 남북조정윤논쟁(南北朝正閏論爭))이 일어난 그 이듬해로, 위의 인용문도 그러한 상황을 의식하여 작성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남북조정윤논쟁라고 하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이헤이키』를 바탕으로 한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메이지 정부는 남조를 정통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노우에는 남조가 정통임을 주장하면서 충효사상이야 말로 대의명분과 직결된다고 하고 국체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 국민도덕이고 대의명분이라고 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무사도 = 국민도덕' 이라고 하는 것은 무사도를 바탕으로 한 폭력도 도덕적인 행위라는 정당성이 부여되며, 전쟁도 정의를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이 성립되는 것이다.

또한 시게노와 아다치, 이노우에의 무사도 발달사에는 무사도를 지닌 역사적 인물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사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충절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손꼽고 있는 것이 바로 구스노키 마사시게이다.

> 아아, 예부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고, 충신열사라고 일컫는 자 또한 매우 많다, 그리고 구스노키 마사시게에 이르러서는 세상에서 말하기를 다른 자들을 뛰어넘어 충신이라고 하면 반드시 마사시게를 연상하는 것은 아동 병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결같다.
>
> 呼呼古来国家の為に命を殞せしもの其の幾何なるを知らず、忠臣烈士と称せらるるものまた甚だ多し、而して楠木正成に至りては世の称すること他に超え、忠臣としていへば必ず正成を連想すること、児童走卒に至るまで皆其の揆を一にせり、(p.121)[18]

전게 본문 (1)의 오쿠보 도시미치의 구스노키 마사시게를 이용한 정의로움의 표출은 군주에 대한 충절을 바탕으로 하여 서민들 사이에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정의를 위해 싸운 인물이라는 공감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것은 군서(軍書)나 서적뿐만 아니라 '다이헤이키요미' 라고 하는 구승적인 전승을 통해서 일반 서민에게까지 강력한 침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

18) 重野安繹, 前掲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문이었는데, 근대 이후에는 교육을 통해서 그 파급력이 더욱 강화되었다[19]. 천황을 위하여 싸우다 죽은 정의로운 인물인 구스노키 마사시게를 무사도를 갖춘 대표하는 인물로 칭송하는 것은 청일, 러일 양 전쟁이 정의의 실현이었고, 그것이 국체시스템으로부터 비롯되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존립하는 길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다이헤이키』의 세계관을 이용한 무사도 담론은 태평양 전쟁 시기에 또 한 차례 일어나는 무사도 붐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Ⅳ. 군신(軍神)과 『다이헤이키』의 세계

4.1. '칠생보국(七生報國)'의 정신과 군신

러일전쟁을 계기로 유행한 것으로는 무사도와 함께 군신을 들 수 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군신으로 추앙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히로세 다케오(広瀬武夫)와 다치바나 슈타(橘周太)이다. 이 절에서는 먼저 히로세 다케오를 중심으로 '칠생보국' 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전쟁과 결부되어 지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히로세 다케오는 1904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일본의 여순항(旅順港) 폐색작전 중 3월 27일에 결행된 제2차 폐색작전에서 전사한 인물이다. 러시아 함대가 견고한 요새로 되어 있는 여순항에서 버티자 일본 해군은 노후된 배를 침몰시켜 러시아 함대를 봉쇄해 버리려는 작전을 세운다. 2월 24일 새벽에 이 작전이 결행되지만 러시아 측에 발각되어 이 배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폭격으로 침몰된다.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3월 27일에 제2차 작전이 결행되는데, 이 역시도 실패로 돌아간다. 이 작전의 결과가 바로 신문지면에 발표되었는데, 이 때 특히 화제가 된 것은 당시 행방불명된 부하를 찾아 배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보트를 타고 나서다가 적의 폭격을 맞아 전사한 히로세 다케오였다. 야마무로

19) 1890년 오카야마현(岡山県)의 소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범으로 삼고 싶은 사람' 1위로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뽑힌 예(中村格(1998)「天皇制下における歴史教育と太平記」『聖徳大学研究紀要』第9号, p.139.)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중 사이에서 이어져 온 구스노키의 전승과 메이지 유신 이후의 교육의 효과(문부성 편찬 최초의 국어교과서 『소학독본』이후 충신으로서 꾸준히 교과서에 등장하였음)로 구스노키의 인기가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겐토쿠(山室建徳) 씨는 히로세 다케오에 대해서 전장에서 특별한 활약을 한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하에게 존경받는 인물 됨됨이 때문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호응에 의해 군신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20] 다치바나 슈타의 경우는 육군이 해군의 군신인 히로세 다케오를 의식하여 만들어낸 군신이라고 하지만 역시 전장에서의 활약상보다는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지휘관으로서의 면모에 의해 군신이 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당시 신문에는 히로세 다케오가 부하를 찾으러 나갔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勇에 더해서 仁을 가지고 한 일(「勇に加ふるに仁を以てするもの」(『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1904년 4월 2일자))'[21]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이 두 군신의 인간성은 이후에도 회자되어 많은 인물전이 간행된다. 예를 들어 1904년 5월에 발간된 『군신 히로세중령장열담(軍神広瀬中佐壮烈談)』이라는 서적은 히로세 다케오가 전사한 지 불과 2개월 후에 간행된 것이다. 그 목차를 살펴보면, '동생을 아껴 위험을 무릅쓰다(「弟を愛して危険を避く」)', '처음은 용기로, 마지막은 인으로(「始めは勇終りは仁」)', '중령, 정에 약하다(「中佐情に脆し」)'[22] 등등 히로세 다케오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내용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3월 신문 매체를 통해 그의 인간적인 지휘관으로서의 면모가 일반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로 인해 군신으로 추앙받았다고 한다면, 불과 2개월 후에 발간된 서적에서 그려진 히로세 다케오의 활약상에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7) 이제 제2폐색대로서 후쿠이마루에 오르려고 할 때에 쓴 글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넣어서 품속에 간직하였다. 동생은 하늘의 도움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그 성공을 기약하는 동시에 무사로서 결코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없을 것을 자신한다.

칠생보국 일사필견 재기성공 함소상선

今や第二閉塞隊として福井丸に上らんとす賜ふ処の手書は先考の真影と共に収

20) 야마무로 겐토쿠 씨의 군신에 관한 논문의 인용은 山室建徳(2012)「日本近代における軍神像の変遷」『帝京大学宇都宮キャンパス研究年報人文編』第18号, pp.160~161.에 의함. 야마무로 씨의 군신에 대한 자세한 논고는 山室建徳(2007)『軍神』中央公論新社를 참조하기 바람.

21) 上掲書, p.160.

22) 본문의 인용은 剣影散史(1904)『軍神広瀬中佐壮烈談』大学館, pp.2~5.에 의하며, 이하 페이지 수를 명시해 두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めて懐に在り弟は天祐を確信し再び其成功を期すると共に武士として決して家声を汚すことなきを自信す

七生報国 一死必堅 再期成功 含笑上船 (pp.149~150)

상기의 인용문에 대해서는 2차 여순항 폐색 작전이 있기 5일 전인 3월 19일에 동생인 히로세 중령이 형(대령) 앞으로 보낸 편지라고 소개되어 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동생은(저는) 인간으로 일곱 번 다시 태어나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자를 멸하겠다는 구스노키 씨 형제의 정신과 마음가짐을 모범으로 삼고자 합니다(「弟は七生人間滅国賊の楠氏兄弟を以て精神と心得居候」)'(p.151)라고 적혀 있어 히로세 다케오 중령이 전장에 임하는 각오를 구스노키 형제의 대의명분에서 찾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칠생인간멸국적(七生人間滅国賊)' 이라는 표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시다 쇼인이 주목한 것으로, '칠생보국(七生報国)' (밑줄부분)은 이 '칠생멸적(七生滅賊)' 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러한 정신이 명시되어 있는 히로세 다케오의 서간을 소개함으로써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히로세 중령을 둘러싼 담론의 형성과정을 살펴볼 때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다이헤이키요미' 를 통해 유포되어 가는 구스노키 마사시게를 둘러싼 담론 형성과정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다. 『다이헤이키』에는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천황에 대한 충성심뿐만 아니라 그가 유일하게 지인용(智仁勇)의 삼덕(三徳)을 갖춘 인물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당시 『다이헤이키』가 만들어진 시기에 이 지인용의 예를 살펴보면 군주, 또는 지휘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것이 『다이헤이키효반히덴리진쇼(太平記評判秘伝理尽鈔)』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간다.[23] 즉 구스노키 마사시게에게는 천황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명군으로서 삼덕을 갖춘 인물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요미우리신문』 1904년 4월 2일자의 기사에서 보이는 "勇에 더해서 仁을 가지고 한 일"이라는 표현에는 히로세 중령이 이러한 삼덕을 갖춘 지휘관이라는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야마무로 겐

23) 이에 대해서는 졸고(2012) 「구스노키 마사시게와 삼덕」 『일본문화연구』제43집, 동아시아일본학회에서 자세히 논한 바가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토쿠씨의 주장대로 그가 군신으로서 국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대된 것인지, 아니면 매체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구스노키 마사시게로 대표되는 명군으로서의 인물상을 당시의 히로세 중령으로부터도 읽어내어 그로 인해 군신으로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중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히로세 중령의 충신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 역시 용이한 작업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천황에 대한 충절의 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교육의 효과도 더욱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후 히로세 중령을 둘러싼 담론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전장에서 현격한 공을 세운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칠생보국'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전장에서 활약했다는 점이다. 1910년에 간행된『구스노키 마사시게 공(楠木正成公)』[24]이라는 서적에서는 마사시게에게 감화를 받은 인물로서 요시다 쇼인과 히로세 다케오를 들고 있다.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는 '칠생멸적(七生滅賊)'이라는 네 글자를 머리위에 붙여 놓고 있었다는 것과 히로세 중령에 대해서는 전게 인용문(7)의 '칠생보국'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1914년에 간행된『쾌걸전(快傑伝)』[25]도 히로세 중령의 여순 폐색 작전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히로세 중령의 서간문을 게재하고 있다. 그 서간문에는 히로세가 읊었다고 하는 와카와 한시가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가장 자주 확인되는 단어는 바로 '칠생'과 '보국' 이다. 또한 와카와 한시에 대한 부연 설명 부분에는 '칠생인간멸국적이라는 말만큼 소년시절 역사서를 읽을 때 다케오가 깊이 감명 받은 것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청일전쟁 때 본국에 있으면서 시가를 읊은 것 또한 분명히 이 뜻을 나타내고 있다(「七生人間滅国賊の語ほど少年読史の際より武夫を深く感銘をせしものなきを覚ゆるなり日清の役扶桑にありて口吟せしもの亦此意に外ならざるなり」)'(p.193)라는 식으로 청일전쟁 때부터 이미 '칠생보국'의 정신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는 언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러일전쟁 이후, 히로세 중령에 대해서 다룬 서적이 그의 '칠생보국'의 정신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히로세 다케오는 칠생보국의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라는 식의 프로

24) 秋山角弥(1910)『楠木正成公』光風館, pp.212~230.
25) 伊藤痴遊(1914)『快傑伝』第4巻 東亜堂書房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파간다화 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본이 15년 전쟁에 돌입한 이후에는 이 언설이 고정화되고, 심지어는 '칠생보국'의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계보화 되어 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전쟁기간 중에는 해군을 비롯하여 육군, 공군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신이 만들어지며 그들과 칠생보국의 정신을 결부시키는 경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는 전쟁으로 인한 물품 부족 현상이 일어나자 절약정신의 함양을 위해서 "'물건'의 칠생보국(「「物」の七生報国」)"[26]이라는 표어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15년 전쟁기에도 칠생보국 정신의 본보기로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은 역시 히로세 중령이며, 또한 그의 뜻을 잇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야마무로 겐토쿠 씨는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한 15년의 전쟁기간 중에는 지휘관이 아닌 젊은 청년들의 집단적인 희생에 의해 군신으로 추대되는 경향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27]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진주만 공격에서 소형잠수함인 갑표적(甲標的)을 타고 출격한 10명 중 귀환하지 못한 9명의 특별공격대원들로, 이들은 1942년 3월 7일자 각 신문 일면을 통해서 구군신(九軍神)으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 간행된 서적들에는 다음과 같은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아아, 군신 특별공격대 구용사! 하와이 진주만 공격부대 안에 특별공격대라는 특수임무를 감행한 용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일억 국민들은 우리 사람들의 위대한 공이 하루라도 빨리 세상에 발표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기다리고 있었다.……지금 특별공격대의 진심어린 충성과 장렬한 공격 정신을 듣고 러일전쟁 때의 '여순폐색전' 을 상기하는 것이다. 실로 여순폐색대에 의해 전 세계에 현시된 그 '칠생보국'의 제국해군이 가진 호국의 혼이 깊이깊이 그 맥이 이어져서, 그것이 특별공격대의 훌륭한 공적, 진주만 습격이 되어 전 세계의 간담을 싸늘하게 한 것이다. (『도쿄아사히』) (중략) 칠생보국의 정신은 구스노키 마사시게와 히로세와 구군신의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 육해군 군인 모두에게 통하는 것이다.
>
> ああ軍神特別攻撃隊九勇士！ハワイ真珠湾攻撃部隊の中に特別攻撃隊といふ特

26) 国民精神総動員中央連盟編(1938)『戦時サラリーマン読本』日本青年教育会出版部, pp.55~57.
27) 山室建徳, 前掲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殊任務を敢行した勇士があつたことを知つて、われら一億国民はわれらの人々の偉勲が一日も早く世に発表されることを心から待望してゐた。……いま特別攻撃隊の純忠壮烈な攻撃精神を聞いて日露戦争の時の 「旅順閉塞戦」を想起するものである。まさに、旅順閉塞隊によつて全世界に顕示されたあの 「七生報国」の帝国海軍の護国の魂魄が深く深く脈々と伝え継がれて、さらに、特別攻撃隊の偉勲、真珠湾強襲となり全世界の心膽を寒からしめたものであらう。(『東京朝日』)(pp.213~214) (中略) 七生報国の精神は楠正成や、広瀬武夫や、また特別攻撃隊九軍神のそれであるばかりでなく、日本陸海軍の軍人のすべてを通じてのそれである[28]。 (p.338)

1942년 8월 20일에 간행된 이 서적은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칠생보국'의 정신이 구스노키 마사시게에서 히로세 다케오로, 그리고 구군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역설하고, 이를 확대하여 이 정신이야말로 일본 육해군의 정신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구군신과 '칠생보국'의 정신과의 관련성은 그들이 생전에 남긴 유서나 감상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후루노 시게미 소령(후쿠오카현 24세) 진충보국 칠생보국 천황폐하만세
히로오 아키라 대위(사가현 22세) 히로세 중령전을 읽고
중령은 선조 대대로 근황애국 정신에 불타고 있었다. 오늘날 세상을 풍미하는 자유주의, 공산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 어떤 사람은 오늘날의 세상의 도리와 인심을 어지럽히려고 하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이 히로세 중령의 일본 제국사상, 칠생보국을 알게 하는가, 게으른 자도 한편으로는 분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古野繁実少佐(福岡県 二十四歳) 尽忠報国 七生報国 天皇陛下万歳
広尾彰大尉(佐賀県 二十二歳) 広瀬中佐伝を読みて
中佐は先祖代々勤皇愛国の念に燃えて居た。今日として世を風靡する自由主義、共産主義などの影響をうけ、或ひは今日、世道人心を惑はさんとす。彼らをしてこの広瀬中佐の日本帝国思想、七生報国を知らしめんか、惰夫も或は振起せんことを知る[29]。 (pp.132~133)

28) 沢本孟虎(1942)『あの人この人』青山書院.
29) 農村更生協会八ヶ岳中央修錬農場編(1943)『国本.皇道編』農村更生協会八ヶ岳中央修錬農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와 같이 구스노키 마사시게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칠생보국' 은 요시다 쇼인에 의해 영원히 이어지는 충의 정신으로 그 생명을 부여 받아 군신에 의해 면면히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러일전쟁과 미국을 비롯한 서양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근원적인 정신이라는 담론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민의 집결시키고 전쟁을 수행하는 대의명분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다치바나 슈타의 구스노키 마사시게 자손설

본 절에서는 러일전쟁을 통해서 탄생한 또 한명의 군신인 다치바나 슈타와『다이헤이키』의 세계가 어떻게 결부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다치바나 슈타는 러일 전쟁에서 히로세 다케오와 함께 부하를 위해 희생한 지휘관으로서 군신으로 일컬어진 인물이다. 일본군은 1904년 8월 요양(遼陽)을 점령하고자 러시아군과 격전을 벌이는데, 그는 격전장 중 하나인 수산보(首山堡)에서의 싸움을 지휘하였다. 전사 후 육군 소속이었던 그는 해군의 군신인 히로세 다케오에 대한 대항마로서 육군의 계획 하에 군신으로 추대된다. 군신화 작업에서 그는 일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 즉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아끼는 인간미를 가진 인물로 소개됨으로써 육군의 의도대로 군신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같은 해인 1904년에 발간된『러일전쟁사진첩(日露戦争写真帳)』[30]등의 자료에는 다치바나 슈타가 전장에서 부하를 격려하는 모습과 8월 3일이 동궁(東宮)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군인으로서의 각오가 그려져 있다. 이후에도 그의 인간성과 함께 천황에 대한 충성심이 각별했다는 논리는 여러 서적과 자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것은 다음과 같은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 중령의 부군은 진에몬이라고 하여 히젠국 시마바라영 = 지금의 미나미다카키군 = 치지와촌에서 유신 때까지 촌락의 장을 하고 있었다. 촌락의 장이라고 하면 현재의 촌장과 마찬가지로 한 촌락을 모으는 것이었기 때문에 토지에서는 크게 세력

30) 저자 불명(1904)『日露戦争写真帖』第3集 金港堂, p.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을 뻗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옛날의 계급으로 말하자면 무사의 신분이 아니라 잠시 백성의 위에 설뿐으로 그다지 으스댈 직위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 선조는 남조의 대충신으로서 겐무의 옛 천황을 위해 큰 공을 세운 구스노키 씨로부터 나왔다고 하니까 상당한 명문이다. 그 가계에 의하면 구스노키 씨의 일족으로 구스노키 씨 몰락 후에는 호조 씨의 눈을 피하기 위해 치지와촌으로 벗어나 성을 다치바나로 고쳐서 세상을 피하고 있었다.

中佐の父君は甚右衛門と云ふて、肥前国島原領＝今の南高来郡＝千々石村で維新の際まで荘屋をして居つた、荘屋と云へば現今の村長のような風に一村の束ねをしたものであるから土地では大に羽振を利かしたものである、が昔の階級から云へば無論士分では無く、漸く百姓の上に立つだけで余り威張つた役でも無かつた、けれども其祖先は南朝の大忠臣として建武の昔時の御帝の御為に大偉功を樹てた楠氏から出てをると云ふから中々の名門である。その家系によると、楠氏の一族であつて楠氏没落の後は北条氏の目を避くる為めに千々石村に免れ、姓を橘と改めて世を忍んで居つた。(p.3)[31]

다치바나 슈타의 가계를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다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그는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자손으로 구스노키의 죽음이후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선조인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충절의 정신이 자손인 다치바나 슈타에게도 전해지고 있고, 따라서 그는 러일전쟁에서 활약하였으며 군신으로 추앙받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언설은 1910년대부터 확인되기 시작하여 태평양 전쟁 시의 자료에서까지 꾸준히 되풀이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치바나 슈타와 구스노키 마사시게를 결부시키는 언설은, 사실은 메이지 시대 이래로 계속되어 왔던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자손 찾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논했던 바와 같이 메이지 초기부터 진행되어 온 구스노키 마사시게를 이용한 국민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서 시작된 것이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자손 찾기였다. 1892년 궁내성(宮内省)은 구스노키의 자손을 조사하였는데, 그 때 그의 자손이라고 밝힌 사람들은 50명이상이었다. 그들은 고문서 등 각종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지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한 증거를 가진 혈통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이러

31) 野田挂華(1913)『軍神橘中佐』駸々堂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한 궁내성의 움직임과 그 결과는 1893년『요미우리신문』3월 23일자에도 기사화되고 있어[32], 이것이 범국민적으로 벌어진 사업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은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자손 찾기는 그 후에도 계속되어, 심지어는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가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등장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후지타 세이이치 씨의『구스노키 씨 연구』[33]로, 먼저 구스노키 씨의 가계를 밝히기 위해 그의 선조부터 시작하여 자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고문서 등의 자료를 통해서 3종류의 계보도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인 것은 히다츠 천황(敏達天皇, 538년~585년)의 후예인 다치바나노 모로에(橘諸兄, 684년~757년)가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선조라는 점이다. 또한 3번째의 계보도에는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동생인 구스노키 마사우지(楠正氏)가 와다(和田)씨를 사용하기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적혀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치바나 슈타의 선조는 와다씨(「楠左中将正成の支族和田氏は、実に橘家の始祖である」(p.28)[34])라는 식의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후지타 자신이 서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대로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가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지난한 작업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다이헤이키』라는 중세 모노가타리 작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스노키 마사시게는 당시 실존했던 인물인지 조차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다이헤이키』에서의 첫 등장도 고다이고 천황이 꿈속에서 예시를 얻어 그를 불러들였다는 초자연적 현상을 기반으로 그려져 있고[35], 뿐만 아니라 그 후의 활약상은 비범한 전술가이자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초인적인 모습조차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서구의 영향을 받은 아카데미즘의 실증적 역사가들이 근세

32) 森正人(2007)「近代国民国家のイデオロギー装置と国民的偉人」『人文論叢』第24号, 三重大学, p.170.
33) 藤田精一, 前掲書
34) 森本丹之助(1920)『軍神橘中佐』忠誠堂
35) 고다이고 천황은 겐코의 난(元弘の乱)으로 인해 가사기야마(笠置山)로 옮겨가는데, 어느 날 기이한 꿈을 꾸게 된다. 남쪽에 큰 가지를 뻗고 있는 나무 밑에 구게(公卿)가 늘어서 있고, 남쪽으로 면한 상석만이 비어 있었다. 동자가 나타나 '이 넓은 천하에 천황의 몸을 감출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단 저 나무 그늘의 남쪽에 면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왕좌입니다".라고 말했다. 꿈에서 깬 천황은 나무(木)와 남쪽(南)이라는 점에서 구스노키(楠)라는 글자를 생각해 내고 무사 구스노키 마사시게를 불러들이게 된다. 이 내용은 長谷川端 校注・訳(1996)『太平記』1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54 小学館, pp.124~125.에서 확인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일본사』 이후에 성립된 남조(=요시노조(吉野朝)) 정통론이 『다이헤이키』라는 허구성을 띤 작품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노키 씨의 자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구스노키 씨와 같이 너무나 애처로운 고난을 겪은 사람은 가계 혹은 자손이 완전히 암흑 뒤로 묻히는 것 또한 실로 어쩔 수 없는 일에 속한다. 단 존재하는 것은 존재한다. 구스노키 씨의 충렬은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楠氏の如き、世にも悲哀なる逆境者にありては、家譜又は流裔の全く闇黒の裏に葬り去られたるは、復た應に已むを得ざる事に属す、但し存在するものは存在す、楠氏の忠烈は未来永存在すべし」)'(p.2)[36]라는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손을 찾는 것은 구스노키 마사시게를 실존인물로서 규정한 후, 그의 충렬이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남조의 충신과 군신과의 혈연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단지 다치바나 슈타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히로세 다케오에 대해서는 그가 남조를 위해 싸운 무장 닛타 요시사다(新田義貞)의 후손이라는 언설도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구스노키 마사시게를 비롯한 남조 충신들의 천황에 대한 충절의 정신이 근대에도 그 맥을 유지하여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군신이라는 특정인물을 제시하여 천황에 대한 충절의 정신을 시각화함으로써 일본의 전쟁이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V. 마치며

『다이헤이키』의 세계를 대표하는 구스노키 마사시게에게는 다양한 이미지가 부여되어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명군(明君), 즉 훌륭한 지휘관으로서 삼덕(三德)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천황을 위해 일곱 번 다시 태어나더라도 적을 끝까지 없애겠다는 충절의 정신이다. 또한 그에게는 정의로운 일을 하면서

36) 藤田精一, 前掲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도 죽음에 이르렀다는 민중의 동정심이 따라다녔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가 '다이헤이키요미'를 통해 오랫동안 민중들에게 각인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이미지를 천황의 나라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대의명분의 정신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수렴시킬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막말 지사들에게 정신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요시다 쇼인이었다. 그는 구스노키 형제의 충절의 각오에 주목하여 '칠생설'을 통해서 그 정신이 불멸할 것이라는 영원성을 부여하였다. 근대 이후 이러한 쇼인의 주장은 무사도 정신과 군신들에 대한 담론으로 재생되었으며, 이것이 전쟁에 임하는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담론을 접한 국민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다이헤이키』의 세계에 투영시켜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인식하도록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쟁에 『다이헤이키』의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국민들이 스스로를 그 세계에 투영시킴으로써 전쟁 참여를 합리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희(2012)「구스노키 마사시게와 삼덕」『일본문화연구』제43집, 동아시아일본학회
야마무로 신이치 지음・정재정 옮김(2010)『러일전쟁의 세기』소화, p.232.
秋山角弥(1910)『楠木正成公』光風館, pp.212~230.
足立栗園(1901)『武士道発達史』積善館, pp.7~8.
伊藤痴遊(1914)『快傑伝』第4巻 東亜堂書房, p.193.
井上哲次郎(1902)『巽軒講話集 初編』博文館, p.98.
_____(1912)『国民道徳概論』三省堂, p.273.
剣影散史(1904)『軍神広瀬中佐壮烈談』大学館, pp.2~5.
国民精神総動員中央連盟編(1938)『戦時サラリーマン読本』日本青年教育会出版部, pp.55~57.
沢本孟虎(1942)『あの人この人』青山書院, p.338.
重野安繹・日下寛共著(1909)『日本武士道』大修堂, pp.1~2.
司馬遼太郎(1971)「太平記とその影響」『太平記』日本の古典15 河出書房新社, p.8.
中村格(1998)「天皇制下における歴史教育と太平記」『聖徳大学研究紀要』第9号, p.139.
農村更生協会八ヶ岳中央修錬農場編(1943)『国本.皇道編』農村更生協会八ヶ岳中央修錬農場, pp.132~13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野田挂華(1913)『軍神橘中佐』駸々堂, p.3.
長谷川端 校注・訳(1996)『太平記』1・2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54・55, 小学館
藤田精一(1915)『楠氏研究』藤田精一, p.599.
兵藤裕己(2005)『太平記<よみ>の可能性』講談社学術文庫
森正人(2007)「近代国民国家のイデオロギー装置と国民的偉人」『人文論叢』第24号, 三重大学, p.170.
森本丹之助(1920)『軍神橘中佐』忠誠堂, p.28.
山崎道夫(1972)「吉田松陰の七生説と宋学の理気論」『大東文化大学東洋研究所』第26巻, pp.9~14.
山室建徳(2007)『軍神』中央公論新社, pp.3~84.
_____(2012)「日本近代における軍神像の変遷」『帝京大学宇都宮キャンパス研究年報人文編』第18号, pp.160~161.
吉田松陰著・山口県教育会編(1935)『丙辰幽室文稿』吉田松陰全集第7巻 岩波書店, pp.127~128.
若尾政希(1994)「「太平記読み」の歴史的位置」『日本史研究』380
저자 불명(1904)『日露戦争写真帖』第3集 金港堂, p.3.

❖ 투고일 : 2013.06.30
❖ 심사완료일 : 2013.08.03
❖ 게재확정일 : 2013.08.1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